

생활정보

주차공간 확보 장애물 과태료

생활 '내집 앞' 등을 이유로 길가에 장애물을 설치해 남의 주차를 방해하면 최고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11월22일 주택가 골목이나 상점 앞 등에 자신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돌덩이, 물통, 간판 등 불법 장애물을 내놓아 다른 사람의 주차를 막으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제품 사용소감 공개

소비자들이 제품을 써본 후 사용소감과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가이드클럽(www.guideclub.com)이 문을 열었다. 이 사이트는 제조업체나 판매업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야 하는 인터넷 쇼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11개 카테고리의 1000여개 품목이 올라 있다. 글을 올린 사람은 원고료도 받을 수 있다. (02) 3472-3642

인터넷사원 산재 고용보험 혜택

근로 정부지원 인터넷사원의 신분인 종전의 연수생에서 계약직근로자로 격상돼 산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인터넷사원은 또 고용대중 등 학력과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월 50만원씩 특급이 받게되며 연수기간은 종전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노동부는 11월 19일 이같은 내용의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옛 학생용 버스카드 폐지

교통 서울시는 1일부터 옛 학생용 버스카드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학생전용버스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옛 학생용 버스카드 소지자는 1일부터 학생요금(340원)이 아닌 일반요금(490원)을 내야 한다. 시는 유효기간이 입력된 실명 학생전용버스카드를 지난 3월부터 발급하면서 옛 학생용 버스카드를 학생전용버스카드로 전환토록 유도해 왔다. (02)3707-9731

김치, 심장병 고혈압 예방

건강 김치를 먹으면 심장병과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제대 식품과학부 송영선 교수팀은 11월 22일 쥐에게 장기간 김치를 먹이면서 혈압을 측정하고 혈액을 분석한 결과 혈압은 그대로 유지되고 동맥경화 등의 원인이 되는 혈전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효과는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혈전용해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커피찌꺼기 담배냄새 제거

삼식 집안에 밴 담배냄새를 없애는데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면 좋다. 청소하기전 커피 찌꺼기를 여기저기 뿌린 뒤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담배냄새가 없어진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중산층 얇아져...근로의욕 저하 우려 최저생계비 이하 빈민 1천만명 넘어

불교는 모두가 고루 잘살 수 있는 '서로 공존하는 사회'를 불교도 이념의 근본으로 삼고, 국가와 종교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물론 부의 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고 그 속에서 소욕지족(小欲知足)할 수 있는 기반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때 비로소 나라가 편안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최근들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심각한 사회문제 대두되고 있다. 11월 9일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중산층의 소득이 상위층의 절반이하로 떨어져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NDP)과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최저생계비(1인당 월 23만4천원) 이하 빈민이 1천만명을 넘어섰다는 연구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원인을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절대적 소득분배가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익부 빈익빈' 심화현상은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던 중산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정치의 이상(理想)을 '내부성인의 절대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지도자가, 국가가 정치의 올바른 궤를 밟지 않으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설하셨다. <중일아함경>에 "소매가 강물을 건너갈 때 길잡이가 소를 길에 바로 가지 못하면 뒤따르는 소들이 물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미국이 망한다면 그것은 인종문제가 아니라 분배 문제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이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nia.com)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부엌대기로 천대받은 아줌마들이 사회의 진정한 '살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창립대회 2백여명은 11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겉스카우트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이날 남동한 '아줌마 현장'에 따라 '신소같은 사회 만들기'에 나섰다.

지도총 火葬 기피

정치인 사후화장 신청 저조 '매장관련법' 국회서 낮춤 우리나라 지도층들은 죽어서도 지도층으로 남고 싶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최근 장묘문화에 대한 개혁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화장(火葬) 참여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화장 참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사후 화장을 약속한 지도층 인사는 고건 서울시장 국민회의 정호선 의원 등 20여명으로 '장묘문화 개혁 범국민협의회'에 사후 화장을 신청한 5천여명 가운데 0.4%에 불과하다. 이 중 정치인은 정호선 의원 단 1명 뿐으로 정치인의 참가율이 제일 낮다.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서랍속에서 낡았을 자고 있다.

의원 등 20여명으로 '장묘문화 개혁 범국민협의회'에 사후 화장을 신청한 5천여명 가운데 0.4%에 불과하다. 이 중 정치인은 정호선 의원 단 1명 뿐으로 정치인의 참가율이 제일 낮다.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서랍속에서 낡았을 자고 있다. 다만 나면 "나라를 위해서..."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살아서도 아니고 죽어서 화장하자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서울시의 화장률은 98년 36.4%에서 금년에는 40%를 웃돌 전망이다. 종교·사회 시민단체들도 화장을 적극 권장하고 나서고 있는 판국이다.

'개종파의 전쟁' 불교-힌두교 공동선언

교황 '아시아 포교' 지시 맞서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아시아 포교 강화' 지시에 맞서 불교와 힌두교 성직자들이 개종저지 단결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AP통신이 11월 21일 전했다.

AP통신은 21일 네팔 남부 톰비네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 종교 국제회의에 참석한 아시아 각국 성직자 1천여명은 교황의 아시아 포교 강화 발언에 대해 불교와 힌두교에 대한 '전쟁'이자 '정신적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참석한 아시아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의 강압적인 개종 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바로 2세는 지난 6일 인도 뉴델리에서 "아시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찬송을 원하며 예수만이 베풀 수 있는 생명을 갈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2세는 또 배석 주교들에게 "로마 가톨릭이 메시지를 확산시키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교황의 포교 지시를 전해들은 인도 힌두교 급진파들은 외국 선교사들의 인도 철수와 400년전 힌두교도를 학살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12월 3일은 우리가 IMF 구제금융지원을 신청하고 그 관리체제를 받아들인 지 만 2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우리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 운운하며 모두가 망연자실했다. 불과 열마지기만해도 일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의 선진국대열에 진입했다는 허울좋은 환상에 사로잡혀 흥청거리던 우리가 아니었던가? 그야말로 IMF관리라는 치욕은 어느날 아침 문득 내려진 날벼락과 같은 것이었다. 부도, 실업자, 노숙자, 가계과산,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의 용어가 매일 신문지면을 장식하던 와중에서 실로 우리는 그동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시련과 고초를 겪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가혹이나 줄어든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안방 깊이 간직해둔 어린애의 돌반지까지 내놓으며 국가적 위기에 동참하는 범국민적 의지와 단합을 보여 주었다. 그 결과 환란을 극복하는 데 5년은 족히 걸릴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2년이 경과한 지금 우리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단기간에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여기엔 국민의 단합된 위기 극복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향후진로에 대해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위기적 요소와 불확실성이 도처에 엮여있고 있을 또한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경제위기탈출을 위해 정부가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공적 자금이 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쏟아 부은 결과,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국가채무는 추후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 이외에도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과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세계시장에서의 강력한 경쟁국으로 부상 동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위협적 요소들이 틀림없다.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는 복병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방심하거나 대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만에 하나 소득구조와 생활수준의 왜곡, 불균형상태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사회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기존체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극한적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유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 우리의 국민적 정서가 IMF 2년을 거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월급으로 생활을 영위해가는 대다수 서민들의 신세는 정리해고, 월급삭감, 복리후생제도폐지 등으로 동료간의 인간관계는 급속히 파괴되고, 살

아남기 위한 경쟁의식만이 광배해진 살벌한 분위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조직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해 오로지 자신의 업적과 성과를 부풀리고자 발버둥치는 각박한 현실속에서 인간적 삶의 질이나, 가치는 의미해부기조차 어려운 세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같은 사회적 현상을 다름과 감싸주어야 할 정치관을 들여다보면 더욱 가관이다. 본연의 임무를 등진 채 정쟁으로 시작해서 정쟁으로 날이 저무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무어라고 설명해야 할 것인가?

10년전 귀순한 북한 유학생으로

우리사회에 비교적 적응을 잘 하여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고 있는 전철우씨의 "북한은 못살죠. 하지만 서로에게 관심과 애정이 많아 여기처럼 각박하지 않아요. 반대로 자본주의는 돈 때문에 가혹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는 곳입니다. 남한이 좀더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인간적인 자본주의가 되길 바랍니다" 라는 간절한 외침은 실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 조국은 '몰아와 살고 싶은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마음놓고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모두가 마음을 가다듬고, 다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김춘남 (용인대 교수)

“ 위기탈출 했다지만 정치 사회 혼란여전 아직도 숙제 남았다 ”

하루에 한번만 켜주시면 경내에(가정에) 온종일 부처님의 경전말씀이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인켈 inkel 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Advertisement for Inkel CD player. Features an image of the CD player and a list of 56 tracks including sutras and Buddhist teachings. Text describes the CD's features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Inkel CD player. Features an image of the CD player and text describing its 'GOOD DESIGN' and 'FM broadcast' capabilities. Includes pricing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Inkel CD player. Features an image of a CD and text explaining the 'CD 한장을 비워 두었습니다.' (We left a CD blank) concep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deadline.

구입문의 080-900-0101 032-343-2267. 주문방법: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구매할 상품의 가격을 확인 후 입금하시면 상품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할부가능) 배달방법: 입금 확인후 택배/오토바이/고속/직배 등을 이용하여 5일내 가정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입금계좌번호: 서울은행 51304-6100001 (예금주 이희숙)